

임상수 4번째 · 연상호 3번째...한국영화 올해도 칸 진출

총 56편의 '공식 초청작' 가운데 연상호 '반도' 임상수 '행복의 나라로'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영화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칸영화제)에 임상수 감독과 연상호 감독이 진출했다.

칸영화제 측이 3일(현지시간) 파리 UGC 노르망디에서 발표한 '칸 2020 오피셜 셀렉션'(올해 공식초청작)에 따르면 총 56편의 '공식 초청작' 가운데 한국 영화로는 연상호 감독의 '반도'와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가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임상수 감독은 네 번째로 연상호 감독은 세 번째로 칸영화제에 입성하게 됐다.

연상호 감독은 앞서 지난 2012년 에네메이션 '돼지의 왕'으로 감독 주간에 초청 받았고, 2016년에는 '부산행'이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초청 받은 바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실사영화 모두 초청을 받은 유일한 감독이기도 하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는 전작 '부산

행'에서 4년이 흐른 뒤 폐허가 된 땅에서 거대해진 좀비 군단과 최후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강동원과 이정현이 주연을 맡았으며, 오는 7월 개봉 예정이다. 티에리 프리모 칸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연상호 감독은 박찬욱, 봉준호를 잇는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라며 "반도"는 '부산행'의 훌륭한 시퀀스"이라고 평했다.

네 번째로 칸에 진출한 임상수 감독은 지난 2005년 '그때 그사람들'로 감독 주간에, 2010년 '하녀'로 장편 경쟁부문, 2012년 '돈의 맛'으로 장편 경쟁부문에 초청 받았다.

더불어 '행복의 나라로'에서 주연을 맡은 최민식도 2002년 '취화선', 2004년 '올드보이', 2005년 '주먹이 운다'에 이어 네 번째로 칸의 러브콜을 받았다. 박해일 역시 2006년 '괴물'에 이어 두 번째로 칸에 초청됐다.

'행복의 나라로'는 우연히 만난 두 남자가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찾기 위해 특

별한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최민식과 박해일이 주연을 맡았다. 칸영화제 관계자는 '행복의 나라로'에 대해 "멜랑콜리와 슬픔으로 가득 찬 영화다. 몇몇 엄청난 장면들은 영화에 다른 차원을 부여한다. 언제 나처럼 감독의 자조적인 유머는 멋지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칸영화제는 당초 5월12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결국 오프라인 개최를 포기하고, 대신 2020년 공식 초청작들을 발표했다.

칸영화제 측은 발표된 초청작들은 가을에 열릴 다른 영화제들을 통해 선보여지는, '칸의 벽을 넘어서 이동'하는 형식의 영화제로 꾸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베니스 영화제 등 다른 영화제와 협업(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초청작들을 공개하는 형식이다.

티에리 프리모 집행위원장은 공식 섹션에 속한 모든 영화의 명단을 공개하기



반도는 현재부터 내년 봄까지 극장 개봉을 결정한 영화들의 명단만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화들은 '2020년 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칸' 타이틀이 붙어진 영화들은 토론토 영화제, 산 세바스찬 영화제, 뉴욕 영화제, 부산 영화제, 루미에르 영화제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모범형사' 불량함 가득 티저 포스터 공개

JTBC 새 월화드라마 7월6일 오후 9시30분 첫 방송



'모범형사' 손현주와 장승조의 모습이 담긴 티저 포스터가 공개됐다.

JTBC 새 월화드라마 '모범형사'(극본 최진원/연출 조남국) 측은 4일 기존 통념을 뒤집는 의미심장한 카피와 함께 환상의 파트너로 위인 형사 강도창(손현주 분)과 오지혁(장승조 분)이 전면에 나선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모범형사'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형사가 은폐된 하나의 진실을 추적하는 통쾌한 수사극이다.

티저 포스터 속에는 경찰 정복을 입고 마주 선 강도창과 오지혁의 모습이 담겼다. 각이 딱 잡힌 자세로 경례를 해야 할 것 같은 복장인데, 주머니에 손을 넣은 자세와 카메라를 응시하는 표정은 불량스럽기까지 하다.

극 중 강도창은 한때는 자랑스러운 형사였지만, 현재는 코앞에 둔 승진 심사가 가장 중요해진 인물이다. 오지혁은 경찰대 출신에 근무 평점 1등을 찍은 엘리트지만, 그 뒤엔 필요하다면 협박도 서슴지 않는 그만의 냉철한 수사 방식이 존재하는 캐릭터다.

제작진은 "4일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타의 모범이 되고 싶었던 상극 콤비가 그려갈 통쾌한 형사물의 느낌을 담아내고자 했다"라는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일 처음 공개된 티저 영상을 시작으로 '모범형사'가 점차 베일을 벗을 예정이다"라며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자극하는 스토리와 통쾌한 재미를 선사할 '모범형사'의 방송까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모범형사'는 오는 7월6일 오후 9시30분 처음 방송된다.

'만찐남녀' 김도연x김민규, 밀착 스킨십 포스터

플레이리스트 최초 웹툰 원작 드라마 '만찐남녀' 김도연과 김민규의 포스터가 공개됐다.

플레이리스트 '만찐남녀'(극본 최요지/연출 왕혜령) 측은 4일 김도연과 김민규의 밀착 스킨십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만찐남녀'는 동명의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여고생 한선녀(김도연 분) 앞에 10년도 더 된 순정만화 '선녀와 남유군'의 주인공인 천남욱(김민규 분)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로맨스 드라마다.

포스터 속에는 천남욱과 그의 얼굴을

살포시 감싼 한선녀의 밀착 스킨십이 담겨있다. '만찐남녀'답게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운 투닥이 설렘을 더하고 있다.

'만찐남녀'는 웹드라마의 명가 플레이리스트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첫 웹툰 원작 드라마인 만큼 원작 웹툰의 묘미를 영감으로 얼마나 멋지게 구현시켰을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만찐남녀'는 오는 25일 오후 7시 플레이리스트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공개된다.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오후 7시 방송되며 네이버 시리즈온에서는 1회차 선공개 감상이 가능하다.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비 8억뷰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Feat. Halsey)' 뮤직비디오가 8억뷰를 돌파했다.

2019년 4월 발매된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의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Feat. Halsey)' 뮤직비디오는 6월4일 오전 5시 28분에 유튜브 조회수 8억 건을 넘어섰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Feat. Halsey)'는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등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 작고 소중한 사랑의 즐거움'을 담은 곡이다. 세계적인 가수 할시(Halsey)가 피쳐링으로 참여해 더욱 화제를 모았다.

뮤직비디오는 극장과 무대, 가로등 거리 등 이국적이면서 화려한 세트에서 춤

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할시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매력적인 퍼포먼스가 더해져 한 편의 뮤지컬 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를 오마주해 수십 명의 댄서와 함께 하는 마지막 장면은 군무의 진수를 보여주며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 곡은 빌보드 차트에서도 대기록을 달성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8위로 첫 진입해 8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는 할시와 방탄소년단이 함께 무대를 꾸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Feat. Halsey)'를 포함해 총 23편의 억뷰 뮤직비디오를 갖고 있다. 최근 '디엔에이(DNA)'로 10억뷰 기록을 세웠다.

대중상 축하공연 박봄...리즈시절의 반전 청순美

'제56회 대중상 영화제'에 축하공연을 위해 참석한 박봄이 달라진 외모로 이슈의 중심에 섰다.

박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 서울 씨어터홀에서 열린 제 56회 대중상 영화제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시상식에 앞서 레드카펫에 등장한 박봄은 오랜지 컬러의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늘씬한 각선미를 자랑하며 킬힐을 신고 등장했다. 그의 화려한 외모는 모두의 눈길을 한번에 사로잡았다.

또한 이날 열창한 자신의 솔로곡 '봄'은 전성기를 무색케 하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인해 탑싱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가수로서 완벽한 무대를 보여줬다.

또한 박봄의 조금은 낯설어진 외모 또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의 무대를 본 누리꾼들은 "지금도 이쁘지만 과거에는 더 이뻐했는데", "살을 조금 빼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보면 바비인형처럼 예뻐다"며 그녀의 외모에 대한 생각들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4일 메이크업 아티스트 민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영화제가 끝난 뒤 무대에서 내려와 편한 일상복으로 갈아 입고 인증샷을 찍고 있는 박봄의 사진을 공개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전미도 코웨이, AIS 정수기 모델발탁

라이프케어기업 코웨이는 지난달 출시한 2020년 전략제품 'AIS(아이스) 정수기' 광고 모델로 배우 전미도를 발탁했다고 4일 밝혔다.

전미도는 얼마 전 종영한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극 중 신경외과 교수 채송화 역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코웨이는 전미도가 드라마에서 보여준 전문적이고 간결한 이미지가 정수기 브랜드 파워 1등 기업이 만든 AIS 정수기의 우수한 성능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모델로 선정했다.

전미도는 다음주 TV 광고를 통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